

□ 기조 연설

#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준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교수)

## I 여는 글

이번 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의 첫 학술대회 주제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선정한 것은 매우 필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최근에 기독교상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신학교에서도 앞다투어서 상담대학원을 세우거나 기독교상담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최근에 특수대학원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상담대학원의 대부분이 신학대학교에 속해있는 것을 보아도 얼마나 기독교상담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상담에 관심을 보이고 상담을 목회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Th.M과정에 개설된 목회상담 전공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몰리고 있다.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교육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회들마다 앞다투어서 상담학교를 개설하고 다양한 주제들의 세미나를 통해서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도하고 남을 돕는 일에 유익을 얻기도 한다. 그 뿐 아니라 기독교상담과 관련된 학회들도 세워져서 각기 학문적인 교류와 전문상담자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활발하게

기독교상담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신학 부재의 혼란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기독교상담이란 단순히 기독교인이 상담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상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상담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상담은 신앙과 상담 내지는 신학과 상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기독교상담에서 신학이 부재하고 신앙이 배제되어 있다. 기독교상담개론에서 Freud 이론이 중심이론으로 가르쳐지고 있으며 Jung이 기독교상담의 원조인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일반 심리학에서도 Freud와 Jung의 이론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 기독교상담을 가르치는 과목인지 아니면 고전 심리학을 가르치는 과목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상담의 현실에서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를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조명해보고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복음주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또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은 복음주의라는 틀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며 건설적인 학문적 교류가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개론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다양한 통합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고 복음주의 기독교상담 학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펴는 글

### 1.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를 보는 다양한 견해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심리학을 배척하는 입장과 심리학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 그리고 심리학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John Carter와 Bruce Narramore는 Richard Niebuhr의 기독교와 문명 상호간의 역사분석을 따라서 대립 모델(Against Model), 종속 모델(of Model), 병행 모델(Parallels Model), 통합 모델(Integration

Model)로 구분하였다. Richard Niebuhr는 기독교와 문화의 상관 관계를 5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문화에 대한 적대적 자세(Christ against culture)로서 모든 세상의 문화를 배척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 관점에서는 심리학을 가난안에서의 바알신 숭배와 비유하며 심리학이 인간의 성화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문화에 동화되는 자세(Christ of culture)로서 종교적인 믿음은 인간문화의 산물이라고 본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부인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 산물로 본다. 성경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 이면에 쓰여진 인간의 의도를 찾으려 한다. 종교 심리학의 대표적인 이해방법이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보는 견해이다. 세 번째는 문화를 판단하는 자세(Christ above culture)로서 전통적인 로마 천주교의 입장이다. 교황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며 오류가 없기 때문에 교회도 문화의 위에 있고 오류가 없다고 본다. 통합적인 입장으로 이해하면 교회가 심리학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네 번째는 문화와 병행하는 자세(Christ and culture in parallel)로서 루터는 로마 천주교의 입장을 거부하고 교회와 국가는 다르고 구분된 개체라고 보았다. 즉 세상의 정치와 문화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지만 교회와는 구분되는 영역이라고 본다. 목사와 심리상담자가 하는 사역은 둘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서로가 구분된 영역이다. 다섯 번째는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자세(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로서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신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Calvin이 이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신자들은 주변의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바꾸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주장은 심리학과 신학의 통합에서도 가장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원리이다. 심리학의 이론들을 성경의 원리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화 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다.<sup>1)</sup>

또한 Collins는 통합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하면서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로는 기독교와 심리학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인 접근법(Denial Approach). 두 번째는

신학과 심리학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서로 교류할 수 없는 철도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하는 철로 접근법(Railroad Track Approach) 세 번째는 한 상황은 여러 수준에서 설명될 수 있고 신학과 심리학은 각기 다른 레벨에서 사물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분석수준 접근법(Level of Analysis Approach) 네 번째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신학은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계획을 심리학은 인간을 작동시키는 기계적인 작동과 그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통합될 수 있다고 보는 통합된 모델을 통한 접근법(Integrated Models Approach) 다섯 번째는 성경을 토대로 심리학의 자원들을 부분적으로 가져와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강탈 접근법(Spoiling the Egyptians Approach)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는 전제 위에 심리학을 재건해야 한다고 하는 재건 접근법(Rebuilding Approach)으로 구분하였다.<sup>2)</sup>

Eric L. Johnson과 Stanton L. Jones는 그들의 저서 “Psychology & Christianity”에서 기독교가 심리학을 대하는 4가지 태도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필자는 Johnson과 Jones의 분류를 토대로 기독교와 심리학의 관계를 정리하고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병행모델(The Levels-of-Explanation Model)

병행모델의 특징은 심리학과 신학의 추구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심리학과 신학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며 전혀 다른 대상을 연구하며 각기 다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신학과 심리학의 차이를 무시하고 두 개의 영역을 통합하려고 할 때에 더욱 큰 혼란과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3)</sup> David G. Myers는 심리학을 행동과 사고진행의 과학이라고 정의한다. 즉 심리학은 과학이기 때문에 믿음과 구분되어져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sup>4)</sup> 병행 모델은 세속적 입장과 기독교 입장으로 나뉘어진다. 세속적 입장은 종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종교 지향적인 영적 상담과 과학 지향적

인 심리상담과의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기독교 입장의 병행 모델에서도 성경과 심리학 모두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두 영역이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학문 사이에는 깊은 상호 활동이 없음을 표명한다. 결국 신학과 심리학과 기독교는 상호간에 관련성이 없으므로 갈등도 없다고 본다.<sup>5)</sup> Myers는 기독교 심리학자로서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한다. 심리학이 과학이라고 오류가 없거나 주관적인 믿음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은 자료는 누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편견과 실수에서 면제되지 못한다. 또한 심리학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지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에는 무력하다. 그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러시아 소설가 레오 톨스토이가 제시한 다음의 궁극적인 질문들 즉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며, 인생에 죽음이 허물지 못하는 목적이 있는가 등에 (심리학이)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대신에 심리학이 사람들이 특정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라. 그럴 때 너는 심리학 공부가 매혹적이고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그러나 두 영역이 상호적인 교류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두 영역은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신학과 심리학은 통합의 대상들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Myers는 심리학이 기독교 신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나열한다. 첫째로 신앙적인 가설들은 심리학의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신앙적인 진리에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객관적인 관찰과 통계를 통한 연구로 증명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심리학의 발견을 활용함

으로 설교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거나 전도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Myers는 심리학이 기독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을 7가지로 나열하고 있다.<sup>7)</sup> 또한 그는 심리학의 발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믿음들을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그는 심리학 연구를 토대로 동성연애자들은 후천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유전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동성애를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고 죄라고 규정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동성연애자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개인의 성적 선호도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심리학적 통계를 토대로한 것이다.<sup>8)</sup> 이처럼 병행모델은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대전제를 토대로 기독교의 진리가 심리학의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고 교정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즉 심리학적 발견들과 도구들로 기독교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병행 모델을 평가하면서 지적되는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 번째로 Meyers는 심리학을 행동과 사고 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하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대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의 근본 문제들에 답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즉 왜 사람이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sup>9)</sup> 이처럼 심리학은 결코 순수하게 관찰에 기초를 둔 과학이 될 수 없다.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과정을 관찰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코 심리학이 기독교와 다른 영역을 다루는 다른 분야가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리학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우리가 믿는 바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Meyers는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믿기보다는 심리학의 발견을 더 의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병행 모델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통합 모델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병행 모델의 시초는 종교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다.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종교를 심리학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심리학의 발전과정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심리학적인 연구과제로 생각하고 종교를 심리학의 도구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종교적인 현상을 연구하려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시도되었으나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시기에 심리학의 발달과 더불어 종교심리학도 큰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Freud와 그 학파의 자연주의적 설명에 대한 결과에 반응으로써 종교적 현상을 각성시키는 관심의 증대였다.<sup>10)</sup> 특히 Freud와 Jung의 심층 심리학은 종교적 현상 연구의 틀이 되었다. Freud는 모든 종교의 문화적인 기원을 에디푸스 콤플렉스의 결과로 본다. 이 맥락에서 기독교도 이루어졌다고 해석한다. 즉 Freud에 의하면 모세는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된 히브리 백성의 지도자였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추종자들이 그가 부과한 엄격한 법률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모세를 죽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에 그의 인격을 알고 그를 야훼로 신격화시켰고 그로부터 엄격한 법률, 죄책감, 속죄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는 모세가 살해되고 그의 형상이 신격화되며 그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는 주기의 반복이라고 본다.<sup>11)</sup> Jung의 종교적 사고도 종교 심리학의 발달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특히 Jung이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자유주의 목회상담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Jung은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에 종교적 원형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인간에게 종교심이 중요하며 이 것이 결여되면 쉽게 노이로제에 빠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상은 Freud가 말하는 것처럼 부정적 체험의 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아 안에 이미 존재하며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간적인 체험을 주는 심리 안에 남겨진 흔적 같은 것이다. Jung에게 종교는 심리학적 현상이다.<sup>12)</sup> 특히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심리학적인 기독교 이해는 많은 신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방법을 저버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심리학을 통한 기독교의 재해석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미국에서 발전된 목회상담은 자유주의 신학과 심리치료의 만남으로 시작되었고 발전되었다. 심리학은 자유주의 신학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으며 신학과 심리학의 경계를 붕괴시키고 심리치료적 목회상담의 꽃을 피우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준 사람들과 기관들로는 William James, G. Stanley Hall, James Jackson Putnam, Elwood Worcester's Emmanuel Movement, the Mental Hygeine Movement, Harry Stack Sullivan, Carl Rogers, Rollo May, Seward Hiltner, Norman Vincent Pearle, O. Hobart Mowrer, Karl Menninger 등이 있다.<sup>13)</sup> 자유주의 신학과 심리학의 결합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목회상담학은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졌으며 복음주의 신학교들은 목회상담학을 외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목회상담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자연스럽게 병행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신학교의 목회상담학 과목에 Freud와 Jung의 이론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이유도 자유주의 목회상담이 종교심리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 2) 통합 모델(An Integration View)

통합 모델은 병행 모델과 같이 신학과 심리학 둘 다 인간에게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르게 교정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병행 모델은 신학보다 심리학에 더 비중을 두고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반면에 통합 모델은 신학과 심리학의 공통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즉 병행모델은 심리학을 신학 이해의 도구로 삼는 대신에 통합 모델은 신학 또는 기독교와의 공통분모 또는 통합할 수 있는 영역을 찾으려고 노력한다.<sup>14)</sup> 심리학과 신학(또는 기독교나 성경)은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는 두 가지의 다른 통로라고 본다. 즉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는 서로 무관하거나 대치되는 영역이 아니라 같은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본다. 통합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점이다. 즉 하나님은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일반계시를 통해서도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일반계시 중 하나인 심리학에 나타난 진리는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진리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심리학과 기독교는 갈등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Collins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매우 규정하기 어렵고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고 한다. 통합이 말하기는 쉽고 무엇인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단어이지만 그 실체를 보면 진지한 학문적 연구나 실제적인 방법론보다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한다. 통합이라는 개념도 불분명하지만 과연 무엇을 통합해야 하는 점도 혼란스럽다. 그 대상이 심리학과 신학의 통합인지 아니면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인지 그렇지 않으면 심리학과 성경의 통합인지 또는 상담방법의 통합인지도 불확실하다.<sup>15)</sup> 신학도 매우 다양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통의 신학을 따르느냐에 의해서 통합의 색깔이 달라진다. 통합에 관한 책이나 논문을 보면 저자에 따라서 심리학과 통합의 대상을 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심리학 자체도 하나의 정의되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다. 심리학이라는 단어 속에는 수없이 다른 이론과 개념들이 복잡적이고 포괄적으로 뭉쳐있다. 많은 사람들은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Freud나 Jung이 먼저 떠오르고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인본주의 심리학을 연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지금 심리학계에서는 이러한 이름들이나 학파들은 이미 심리학의 주류나 대표성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최근에는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신경과학(neurosciences), 인지-신경 유전학(cognitive neurosciences)들이 심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행동유전학(behavior genetics)나 진화심리학(evolutionary psychology)등도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이다.<sup>16)</sup>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종류의 심리학을 기독교나 또는 신학과 통합할 것이지 자체가 불분명해진다. Collins는 이처럼 통합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모호성과 불투명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이라는 단어대신에 가입(join)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고 말한

다.<sup>17)</sup> 가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자신의 독특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의 중요성과 원리를 제시하는 책들은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들과 통합의 사례들을 제시한 책들은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Collins는 과연 기독교상담자가 성경과 상반되는 철학에서 출발한 세속 심리치료의 발견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반문한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 유일하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인간의 심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하고 진리를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일반계시를 통해서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도 발견되도록 하셨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계시된 인간심리는 심리학을 통해서 발견된 인간심리와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심리학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sup>18)</sup> 진지한 통합의 노력이 기독교상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 실제의 통합하는 과정에서 신학은 사라지고 심리학만 난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통합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통합 이론의 역사는 심리학자들이 기독교상담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9년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 목회심리학 교수로 부임한 Collins는 심리학자로서 자연히 심리학과 기독교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는 폴 트루니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가 1977년에 출판한 “심리학의 재건 (Rebuilding Psychology)”은 통합 이론의 교과서로 불려 진다. 1965년에는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심리학과 신학을 통합해서 가르치는 심리상담 대학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기독교 심리학자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에 Rosemead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가 세워지고 Bruce Narramore가 첫 번째 학장

이 되었다. 이 학교는 1977년에 Biola University에 심리상담대학원으로 편입이 되었다. 특히 1973년에 John Carter가 이 학교에 들어 오면서 더욱 활발한 통합연구가 이루어졌다. 1973년에 Rosemead Graduate School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Th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는 통합 운동의 첫 번째 정기 간행물이 되었다. 이외에도 아동 심리학자인 James Dobson은 복음주의적인 신앙과 다양한 심리이론들을 잘 배합해서 기독교 자녀교육과 부부생활에 초점을 맞춘 책들을 출판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그가 쓴 책들과 그가 시작한 “Focus on the Family” 라디오 방송사역은 수백만 기독교인들에게 통합주의적 기독교상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에 지침을 삼도록 하는데 공헌하였다. Larry Crabb도 임상심리학자로 활동하다가 기독교상담을 평신도와 대학원에서 가르치면서 통합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1975년에 Dallas Seminary에 실천신학교수로 부임한 정신과 의사인 Frank Minirth와 Paul Meier는 1976년에 기독교인들을 위한 정신과 병원을 개원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들도 정신과 치료를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인 요소를 많이 통합시켜서 실시함으로써 인하여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sup>19)</sup> 이외에도 Psychological Studies Institute, Wheaton College, George Fox College, Geneva College, Denver Seminary등에서 기독교 심리상담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Wheaton College는 1980년에 심리학과를 대학원에 설치하고 통합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David Benner, Stan Jones, Kirk Farnworth, Stephen Evans 그리고 Robert Roberts 등은 Wheaton의 전통에 입각해서 복음적인 신앙과 심리학을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노력을 하였다. 이처럼 통합 운동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고 이와 함께 기독교대학이나 신학교에서도 기독교심리학과를 개설하고 기독교심리학자나 기독교 임상심리학자들을 훈련하고 배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통합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기독교대학교나 신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삼입해야만 했기에 통합은 필요

불가결한 과정이었다.

### 3) 기독교심리학(Christian Psychology)

통합 이론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 통합을 어떠한 관점에서 하느냐 혹은 누가 통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합의 결과는 다양해진다. Robert C. Roberts도 통합을 주장하지만 Collins와는 차이를 나타낸다. Roberts는 Collins를 평가하면서 그가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에서 심리학을 주체로 보고 기독교적인 요소들을(예를 들면 기도, 은혜의 개념, 예배) 접목시키는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sup>20)</sup> 이 말은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한쪽에 편중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두 가지의 다른 영역들을 통합하는 과정에는 한 영역이 주도적인 본체의 역할을 하고 다른 영역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Robert는 같은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좀 더 기독교가 통합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부류로 구분되는 기독교심리학과로 분류되어진다. 기독교심리학자들 가운데 심리학적 인간이해나 진제들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심리학을 단순히 통합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서 Crabb은 초창기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서 좀 더 심리학에 대한 비판과 경계를 강화하면서 기독교신학의 성화 되는 과정으로서의 기독교상담을 강조하였다. 그의 강탈접근법은 단순히 기독교와 심리학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활용하는 자세보다는 심리학을 기독교 신학으로 재해석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그는 자신의 상담을 성경적 상담이라고 명명하고 Jay E, Adams와는 구분되면서도 전통적인 통합이론에서는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 외에도 기독교 심리학자들도 심리학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Paul Vitz는 인본주의 심리학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인본주의 심리학이 인간 자신을 예배하게 만드는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그는 70년대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인본주의 심리학의 자아이론들을 자기를 예배하는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규정하고 반박하였다.<sup>21)</sup> 또한 William Kilpatrick도 심리학과 기독교가 서로 경쟁하는 믿음의 체계라고 비교하면서 기독교가 심리

학이 제공하는 것보다 우월하고 풍성한 삶의 지혜들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심리적인 욕구를 채우는 심리학의 자기사랑과 기독교의 의미 있는 삶을 통한 섬김을 비교하면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sup>22)</sup> Crabb과 함께 사역을 했던 Dan Allender도 구약신학자인 Tremper Longman III와 함께 심리학적인 주제를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하는 3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Crabb과 Allender의 입장은 심리학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신학적인 틀 속에서 심리적인 이해를 한다는 것이다.<sup>23)</sup> 이들은 일반적인 통합 이론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생각에서 좀 더 성경에 초점을 둔 심리학의 활용을 추구한다. Roberts는 기독교 심리학의 목적은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내려온 심리학의 자원들을 개발해서 현대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기독교 심리학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현대 심리 이론들이 기독교 인간론과 이상심리 그리고 심리성장의 목적들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현대 심리학에 의해서 정의되는 인간이해가 아닌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이해되는 인간이해와 심리상담적 방법론을 개발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대 심리학은 기독교 심리학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두 영역을 무리하게 통합을 하려고 시도할 때에 본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그는 기독교 고전을 통해서도 깊은 기독교 심리학의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1998년 겨울에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에서 기독교 전통에서 발췌한 심리학적 통찰을 다루면서 다양한 기독교 영성에 나타난 심리학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는 Augustine, Thomas Aquinas, Richard Baxter, Joseph Butler, George Berkeley, John Wesley, Kierkegaard의 글 속에는 현대 심리학보다 더 깊고 오묘한 기독교 심리학이 있다고 주장한다.<sup>24)</sup> 또한 실질적인 성경적 통합의 예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풍성한 심리학을 담고 있는 기독교 전통 중에서도 매우 중심적이고 권위가 있는 자원이다. 그러기에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성경에서 제시되는 성경적 심리학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기에 기독교 심리학의 발전을 위

해서는 심리학적인 지식이 있는 성경학자들과 성경적으로 훈련된 심리학자들이 공동 작업을 하여야 한다.<sup>25)</sup> Roberts의 기독교 심리학은 성경적 상담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두 가지 접근들이 갖는 공통점은 둘 다 근본적으로 현대 심리학적인 인간이해와 문제의 규명을 부인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대신에 성경을 포함한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인간이해와 문제 규명 그리고 해결의 근원을 삼는다. 그러나 차이점으로는 기독교 심리학은 좀 더 열린 자세로 심리학을 대하는 데에 비해서 성경적 상담은 심리학에 대한 위험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경적 상담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전제와 관점들을 심리적 이해의 축으로 삼는 반면에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성경을 포함한 다양한 기독교의 자원들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다.

#### 4) 성경적 상담

성경적 상담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평신도 기독교상담 전문가들을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된 통합주의 기독교상담에 대항하여서 심리치료를 배제한 목회자들을 주축으로 한 교회 중심적 성경 중심적 상담 운동이었다. 특히 이 운동을 시작한 Jay Adams는 하나님은 교인의 문제를 돕고 해결하는 사역의 책임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믿음으로 교회가 상담사역의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평신도 심리치료 중심의 기독교상담을 목회자 중심이며 교회 중심적인 사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Adams의 성경적 상담 운동이 다른 유사한 상담운동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문제의 치유에 목적을 두지 않는 것이다. Adams는 상담 문제를 삶의 역기능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았고 또한 상담을 치료적인 과정으로 보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성경적 진단을 제시하고 상담은 그러한 진단을 믿고 행동하도록 돕는 성화의 과정으로 보았다. Adams 상담의 특징은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는 엡 4:22-24에서 “...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 새 사람을 입으라”에 강조점을 두고 상담이

란 죄악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을 도와주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구체적으로 죄악된 습관을 찾아내어서 새로운 습관으로 변화시켜주는 과정을 기독교상담의 핵심으로 보았다. 이러한 그의 권면적 상담에 대해서 통합주의 기독교 상담자들은 너무 단순하고 율법적이며 도덕적이며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에 실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교리에 기초를 두는 상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였다. 권면적 상담은 Adams가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 성경적 상담으로 개칭되고 CCEF<sup>26)</sup>의 Ed Welch나 David Powlison 등과 같은 성경적 상담 2세대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바뀌면서 성경적 상담도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Adams가 성경적 변화의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Welch나 Powlison은 마음의 변화를 강조한다. 같은 엡 4:22-24에서 Adams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을 강조하였다면 Welch와 Powlison은 23절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에 중점을 둔다. 행동적인 변화의 근원은 마음의 변화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적 상담도 너무 단순하고 율법적이라는 비난을 극복하고 인간의 심리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을 변화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성경적 상담의 핵심은 인식론에 있다. 그 인식론의 중심에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라는 대전제가 있다. 성경이 성경적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는 데에 적절한 비유는 Calvin의 안경비유이다. Calvin은 성경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정치나 관계나 전쟁이나 경제나 심리학 등과 같은 것들을 구속적인 관점으로 보게 해주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마치 망원경으로 사물을 보면 희미하고 불분명한 물체들이 분명하고 그 본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이해할 때에 그 전에는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물을 보게된다.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더듬으면서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손으로 더듬는 제한된 감각으로 코끼리를

이해하듯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 보는 사물은 그 실체가 왜곡되고 제한되어 있기에 전체를 올바로 볼 수 없게 된다. 성경적 상담은 어둠과 왜곡됨으로 얼룩진 일반 심리이론과 심리치료에 대해서 빛을 비추고 그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상담이다<sup>27)</sup>. Powlison은 심리학이 인간을 이해하는 과학이라고 하지만 심리학이 결코 객관적인 사실만 보여주지 않는다고 공박한다. 즉 특정한 심리이론이 사물을 보는 관점을 결정하게 된다. 무엇을 보느냐는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에 의해서 판가름된다. 특정한 관심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게 되면 관심 이외의 대상들은 관찰에서 제외된다. 결국 심리이론들은 인간이해의 가장 중요한 관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실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잘못된 이론은 모든 사실들을 왜곡시킨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당연히 실체를 떠난 왜곡되고 변질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관찰은 항상 의미와 가치와 우선 순위와 목표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가치와 의미가 제외된 관찰은 불가능하다. Powlison은 Karen Horney의 예를 들면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동기는 사람의 인정과 권력 쾌락 그리고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에 그녀는 육신의 정욕을 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필요를 보았다고 말한다. 심리적인 필요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론적인 상상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간 심리의 관찰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심리적인 필요라고 왜곡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정보의 해석이나 관찰은 믿음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sup>28)</sup>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을 상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성경이 상담에서 활용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Welch는 낮은 자존감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와 대처방법 그리고 성경적인 이해와 대처방법을 비교해서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면의 문제 중 하나가 낮은 자존감이다. 그러기에 낮은 자존감에 대한 많은 심리학적 연구 자료가 있으며 다양한 견해들

이 있다. 일반적으로 낮은 자존감은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는 감정으로 본다. 성경적 상담과 다양한 심리학적인 견해가 낮은 자존감으로 느끼는 경험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서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낮은 자존감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상처나 부정적인 거부의 경험들이 마음속에 상처로 남게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며 그 결과로 부정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게 만든다고 본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자신을 용납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건강한 용납과 인정 그리고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치유된다. 그리고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레기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우리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성경적 상담에서는 낮은 자존감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의 방법은 성취에 대한 인정이나 혹은 주위 사람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성경적 상담의 특징은 성경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으려 추구하는 것이다. 성경적 상담은 성경을 X-Ray 사진과 비교한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몸 속이 X-Ray 사진을 찍어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을 비추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깊은 영역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다. 단순하게 인정과 용납을 통해서 낮은 자존감이 위로를 받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다. 낮은 자존감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의 우상이다.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스스로에게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자신에 대해서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초점이 나에게 있고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으며 낮은 자존감속에 빠진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은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눈을 돌려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구

하고 찾는 것이다(마 6:33).<sup>29)</sup> 자신의 성공이나, 업적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할수록 이러한 욕구들이 우상이 되어서 마음을 사로잡고 채워질 수 없는 심리적인 갈망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들이 우상화되면 더욱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정에 목말라하게 되고 조그만 거부나 인정받지 못함에도 쉽게 좌절하게 된다. 물론 주위 사람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수용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내 속에 채워져야 내가 행복해지고 온전해 질 수 있다는 심리적인 욕구의 껍이 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채움으로 인도해 주신다.<sup>30)</sup>

Hurley와 Berry는 Powlison과 Welch의 글을 평가하면서 신학도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이고 과학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학을 절대화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즉 성경적 상담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 입각한 상담의 체계를 만드는 자세는 훌륭하지만 자신들이 보는 성경의 이해만이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성경을 자신의 전유물로 만들 수 있다고 반박한다.<sup>31)</sup> Roberts는 Powlison이 통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반박하였다. 그는 심리이론과 심리이론에서 발전된 상담 기법은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Carl Rogers의 내담자 중심적인 경청기술들(공감, 감정이입 등)은 Rogers의 인본주의적인 인간이해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도 이러한 상담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을 찾을 수 있다. 즉 Rogers가 강조한 경청기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의 극히 인본주의적이고 반성경적인 인간이해를 꼭 함께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 다른 예로는 인지치료에서 왜곡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는 상담기법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적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Aaron Beck의 인지치료에서 왜곡된 믿음의 기준은 피상담자의 불합리한 생각이고 상담의 목표는 불합리한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에서 사고의 기준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자는 이러한 인지치료의 상담기술을 활용해서 비신앙적이고 병든 사고를 신

양적이고 건강한 사고로 바꾸는데 에 사용할 수 있다. 현대심리학은 셀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상담 기술들이 개발되어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들을 교정하는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담 기술들은 연결된 비성경적 심리이론과 분리시켜서 기독교상담에도 잘 활용될 수 있다. 심리이론들의 기술들 뿐 아니라 그 이론적인 요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Freud의 자기방어기제는 Freud의 무신론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철학에서 야기된 것이다. 그러나 자기방어기제가 Freud적인 요소를 제거해 버리고 기독교적인 원리로 재활용한다면 성경적인 인간이해를 설명하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즉 자기방어기제는 인간의 죄가 나타나고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sup>32)</sup>

이러한 평가들에 대해서 성경적 상담이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Welch와 Powlison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자기반성적인 평가를 하였다. 첫 번째로 성경적 상담이 너무 방어적이고 논쟁적인 태도를 취한 점이다. 자신과 동의하지 않는 견해들에 대해서 형제로 대하기보다는 적으로 상대하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태도가 많았다. 그 결과로 비평의 긍정적인 반성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리고 최악의 통합주의자들을 예로 들면서 통합주의를 모두 잘못되고 나쁜 것처럼 여겼다. 이러한 자세는 성경적 상담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고립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성경을 토대로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방법을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성경적 상담의 의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논쟁적이었다. 논쟁적 자세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적 상담의 바른 의도를 이해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하며 진의가 전달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복잡한 상담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너무 단순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상담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dams의 상담은 문제에 대한 직면이 너무 강하게 표현되면서 상담의 균형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그는 나름대로 균형 있는 상담을 말하고 있지만 직면에 대한 강조에 눌러서 다른 상담의 과정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sup>33)</sup> 이러한 취약점들을 보완하고 성경적 상담이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독교상담들과 열린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교류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층의 사역을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한다. 성경적 상담의 특징인 교회 중심적인 상담을 유지하면서 여러 대학교나 신학교에서 활발한 학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평신도 성경적 상담 전문가들을 훈련하고 배출함으로써 연구나 임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 Ⅲ. 닫는 글

지금까지 통합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과 평가들을 살펴보았다. 신학과 심리학은 각기 다른 영역이기에 갈등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병행 모델은 통합보다는 심리학을 통한 기독교의 재발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통합 모델은 심리학과 신학의 동등한 통합을 주장한다. 기독교심리학 모델은 통합의 과정에서 심리학을 재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서 성경적 상담은 인간과 문제를 보는 관점을 성경에서 찾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상반된 주장들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자기의 입장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은 기독교상담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물론 통합을 보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찬 반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은 기독교상담이 더욱 성숙해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Welch와 Powlison이 언급한 것과 같이 통합을 보는 견해가 다르다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하는 자세는 삼가야한다. 파괴적인 비난보다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숙하게 하는 일에 상호 협조를 하여야 한다. 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안에도 다양한 주장들과 다른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은 Calvin이 주장한 것처럼 문화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심리학도 기독교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문화이다. 이러

한 심리학을 배척하거나 심리학에 융화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즉 심리학이 설명하고 진단한 인간의 문제들을 성경의 안경으로 재해석하며 심리학 자체도 성경의 관점에서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유지하면서 기독교심리학의 견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건설적인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 후 주 \*

- 1) 존 D. 카터, 부르스 나러모어,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과 갈등』, 전요섭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7), 90.
- 2) 게리 R. 콜린스,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전망』 이종일 역 (서울: 솔로몬, 1992), 23-42.
- 3) Eric L. Johnson & Stanton L. Jones, ed., *Psychology & Christianity* (Dow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00), 37-38.
- 4) David G. Myers, "A Level-of-Explanation View," *Psychology & Christianity* 54.
- 5) 존 D. 카터, 부르스 나러모어,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과 갈등』, 전요섭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7), 117-120.
- 6) Myers "A Level-of Explanation View," 56-57.
- 7) Myers, 60. 심리학과 믿음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믿음이 과학을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2. 믿음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 3.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진실할 수 있다. 4. 심리학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 5. 인간 본성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와 종교적인 이해를 연결시킬 수 있다. 6. 종교적인 경험을 연구할 수 있다. 7. 종교의 영향을 연구할 수 있다.
- 8) Myers, 72-80.
- 9) Myers, 97.
- 10) 윤주병, 『종교심리학』 (서울: 서광사, 1986), 18.
- 11) 윤주병, 30-32.
- 12) 윤주병, 43-44.
- 13) David A. Powlison, "Competent to Counsel? The History of a Conservative Protestant Anti-Psychiatry Movemen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6), 45-46.
- 14) Eric L. Jones & Stanton L. Jones, *Psychology & Christianity* 39.
- 15) Gary Collins, *Psychology & Christianity* 105.

- 16) Collins, 131-132.
- 17) Collins, 115.
- 18) Collins, 235-236.
- 19) David A. Powlison, "The History of A Conservative Protestant Anti-Psychiatry Movement" 93-97.
- 20) Roberts, *Psychology & Christianity* 137.
- 21) Roger F. Hurding, *The Tree of Hea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85), 229-230. 그는 자신의 저서 *Psychology as Religion: the cult of self worship*에서 60대 인본주의 심리학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인본주의 심리학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제기하였다.
- 22) Hurding, 232. 그는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교육심리학 교수로서 한 때에 인본주의 심리학에 매료되었다가 기독교 신앙인으로 천천히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심리학의 위험성을 *Psychological Seduction: the failure of modern psychology*에서 경고하고 있다.
- 23) Eric L. Johnson & Stanton L. Jones, *Psychology & Christianity* 40-41.
- 24) Johnson & Johnes, 154.
- 25) Johnson & Johns, 159.
- 26) CCEF(Christian Counseling & Educational Foundation)는 1966년에 Jay Adams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토대로 상담과 교육 그리고 연구를 하는 기관이다. 지금은 Adams가 은퇴를 하고 John Bettler가 원장으로 이 기관을 이끌고 있다.
- 27) Edward Welch, David Powlison, "Every Common Bush Afire with God": The Scripture's Constitutive Role for Counsel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997, Vol. 16, No. 4, 304-305.
- 28) Powlison, *Psychology & Christianity* 201-202.
- 29) Edward Welch & David Powlison, "Every Common Bush Afire with God", 306.
- 30) Welch, Powlison, 307.
- 31) James Hurley & James T. Berry, "Response to Welch and Powlison"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997, Vol. 16, No. 4, 350-352.
- 32) Hurley & Berry, 239-241.
- 33) Edward Welch & David Powlison, "Every Common Bush Afire with God" 320.